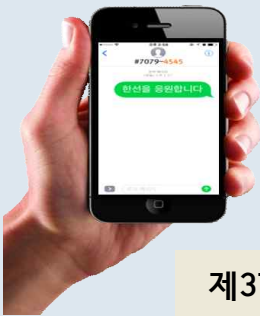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글로벌 신안보 위협과 동북아 협력프레임워크
[발제자] 조경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일 시] 2021년 6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74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코로나 팬데믹은 국민들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유발했다.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안보 개념의 전이·확장은 팬데믹이 접화 계기가 되면서 보호 대상과 위협 대상도 확산되고 있다. 과거의 보호 대상이 국가 단위의 영토와 국민이었다면 점차 인간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위협 대상은 전통적인 군사위협에서 비전통적인 비군사 부분과 경제력, 기술력과 같은 포괄안보로 넓어졌다.

■ ‘신안보 협력 동북아 6개국 서밋’ 프레임워크 설계를 제안한다. 처음부터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적 회의체보다는 핵심 국가들이 합의해 점차 다자적 회의체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중·일 삼국정상회의 등 기존의 회의체가 모체가 되어 한일관계 및 삼국 정상회의의 정상화 후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등을 순차적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안보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략경쟁 색채가 열린 글로벌 공공재 중심의 어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팬데믹, 해양오염, 미세먼지 등의 신안보 논의로부터 신뢰를 축적하여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시켜야 한다.

◆ 안보패러다임의 변화

- ◆ 코로나 팬데믹은 국민들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유발했다. 1990년 대부터 진행되어 온 안보개념의 전이·확장은 팬데믹이 점화 계기가 되면서 더 자명해졌다. 안보개념의 전이·확산에 따라 보호 대상과 위협 대상도 확산되고 있다. 과거의 보호대상이 국가 단위의 영토와 국민이었다면 점차 인간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으로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위협 대상은 전통적인 군사위협에서 비전통적인 비군사부분과 경제력, 기술력과 같은 포괄안보로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통적 위협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전통적 안보위협은 동시에 존재한다. 때문에 최근 다양한 위협에 대응한 다자주의와 개별 국가를 초월한 국제기구가 부각되고 있다.
- ◆ 안보에 대한 인식의 확장은 인간안보로부터 출발한다. 1994년 UNDP 인간개발 보고서에서 시대와 사회가 결정한다는 관점으로 인간안보 개념을 도입했다. 인간안보란 안보 대상을 비군사 영역까지 확장하여 인간이 포함된 조직이면 안보 대상으로 보는 개념이다. 이는 “기아·질병·범죄·억압의 끊임없는 위협에서의 안전, 가정·직장·공동·환경의 일상에서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파괴로부터의 보호”를 말한다.
- ◆ 세계화와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새로운 국가 위협이 발생했다. 군사·외교의 전통 안보와 달리 새로운 비전통적 비군사적 도전 요소에서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신안보이다. 침해 대상이 개인일지라도 그 규모가 광범하고 심각하면 국가 위협으로 간주한다. 잠재성, 연결성, 초국가성이 신안보의 특징이다. 신안보의 또 다른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의도성이 없으며 사이버공간이 주 무대라는 점이다.

◆ 국가의 존재이유

- ◆ 2000년초 IT연결 사회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EU와 NATO는 군사적 비군사적

하이브리드 위협에 주목했다. 미 바이든 행정부 역시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에 적시한 바와 같이 새로운 도전위기로 사이버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었다. 이어서 기후위기, 감염병, 신기술, 세계적 경제마비, 인도적 위기, 심리전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미국 NIC(국가정보자문회의,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등 새로운 도전요인들은 과거 위기 시에 사용하던 제도로는 관리하기 힘들다면서 세계질서의 약점을 노출시켰다고 발표했다.

- ◆ 국제적 협력과 연대는 신안보 위협의 초국경적 위협 특성상 당연하다. 현재 신안보는 연성 어젠다이며 협력하기 좋은 기제이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지표국가로서 국익관점에서 증개하고 연대하고 규범화에 참여하면서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소재가 될 수 있다.

◆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협력체

- ◆ 1975년 8월 1일에 유럽 35개국이 서명한 헬싱키 의정서에 기반한 유럽안보협력체,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유럽의 공동안보문제를 다루는 다자적 협력기구다. OSCE는 주권평등과 고유한 권리 존중, 무력사용 및 위협 금지, 국경 불가침, 내정 불간섭 등 10대 지도원칙과 체결국의 기본 의무사항, 이행조치를 규정했다. 이는 당시 유럽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행동 지침이 되었고, 현재 유럽 57개국과 협력 동반자국 11개국을 회원으로 한 세계 최대 안보협력체로 유럽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 ◆ 지금껏 동북아의 안보협력체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동북아는 높은 경제적 밀도와 역사문제에 기반 한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 인도, 미국, 한국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역내 패권경쟁이 심하다. 게다가 역내 단위 국가들 간 우호적 경험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진영대립이 고착화되어 있다. 동북아의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지정학적 북미권인 미국과 유럽권인 러시아가 들어와 혼재되어 있다. 남방 삼각체인 한미일과 북중러의 북방 삼각체 대립이 역내 협력기제의 성숙을 방해한다. 신안보 위협은 나라와 진영을 불문한다. 동북아도 유럽의 OSCE와 같은 안보 협력체를 결성하여 안보 위협을 대비해야 한다.

◆ 신안보협력프레임워크 창설

- ◆ ‘신안보 협력 동북아 6개국 서밋’ 프레임워크 설계를 제안한다. 처음부터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적 회의체보다는 핵심 국가들이 합의해 점차 다자적 회의체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중·일 삼국정상회의 등 기존의 회의체가 모체가 되어 한일관계 및 삼국 정상회의의 정상화 후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등을 순차적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안보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략경쟁 색채가 열린 글로벌 공공재 중심의 어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팬데믹, 해양오염, 미세먼지 등의 신안보 논의로부터 신뢰를 축적하여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